

"예수님 이야기의 능력!"

성경이 자기 말로 다 번역되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해주는 매체가 대상 문화에 맞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구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글로 읽는 것보다 소리로 듣는 것을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 복음 전파의 돌파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영화를 그 사람들의 말로 더빙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영화는 누가복음을 대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상 언어로 누가복음을 번역이 끝나면 더빙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스 센터(jaars.org)의 현지어 미디어 사역(Vernacular Media Service, VMS) 팀이 브라질에 사는 마마인데이 부족을 찾아가 소강 상태에 있던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1959년부터 1979년까지 위클리프 소속 성경번역 선교사 부부가 마마인데이 말로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단권 성경을 인쇄했지만 그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과 줄리 에버하드 선교사 부부가 1989년부터 그 사역을 재개하였고,

위클리프 캐나다는 성경읽기를 통해 캐나다 내의 교회들이 살고, 동시에 기도와 1절 1센트 헌금을 통해 선교지의 성경없는 부족을 축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클리프 캐나다로 연락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 | | | | | | |
|------------|-----------|-----------|-----------|-----------|-----------|-----------|
| 10/16 (주일) | 10/17 (월) | 10/18 (화) | 10/19 (수) | 10/20 (목) | 10/21 (금) | 10/22 (토) |
| 막 11-12 | 막 13-14 | 막 15-16 | 눅 1-2 | 눅 3-5 | 눅 6-7 | 눅 8-9 |

VMS팀이 1997년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 영화 녹음을 위해서는 성경 인물 역할을 할 성우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는 사탄 역할도 있습니다. 마침, 그 역할을 주술사가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의 말소리가 VMS 사역자들의 헤드폰에는 들렸는데, 아무리 해도 테잎에 녹음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되었는데, 겨우 그 소리가 녹음되어 들어보니 완전히 잡음 투성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지지지직... 찌익... 펍! ... 하나님의 아들이면... 차각차각... 돌이...즈즈즈... 딱이 되게...."

VMS 사역자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겠습니다. 마마인데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시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사로잡아 주시고, 깨끗한 소리로 녹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그 잡음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영화 상영 때 사람들을 모으는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것이었습니다. 마마인데이 사람들은 매우 활동적인 유목민들이어서, 사역자들은 과연 그들이 영화를 보러 올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와서 영화 맨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까지 지켜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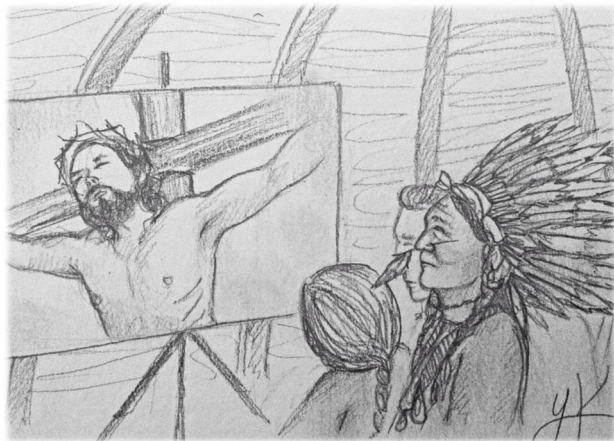
마마인데이 말로 된 예수 영화가 끝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치 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영화의 메시지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년동안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Jungle Flight* by Dane Skelton, pp. 23-30, "마마인데이 마을의 삭개오"에서 인용)

마마인데이 사람들은 예수 영화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후에 영혼을 집어삼키는 아나콘다에게서 자신들을 구하여 영생으로 이끌 분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가장 힘 있는 전달 도구, 즉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정말 좋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구전 사회 사람들은 그 성경 이야기들이 자기 말로 들려질 때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Power of stories told!"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Sometimes people do not respond to the Gospel even when it is translated into their language.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the medium does not fit to their culture. In oral societies where spoken stories are easier to accept than written ones, it is crucial to deliver the Bible stories in an oral form. *The JESUS Film* dubbed in the local language is the best tool in this case to make a breakthrough. The script of the film is based on the Gospel of Luke and the dubbing work can be started once the Gospel of Luke is translated in the target language.

A Vernacular Media Service (VMS) team from JAARS went to the Mamaindé people to revive the translation project among them. One Wycliffe Bible Translators' couple translated the Gospel of Mark in their language from 1959 to 1979 and printed it, but there was no response. David and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 Sun, Oct 16 | Mon, Oct 17 | Tue, Oct 18 | Wed, Oct 19 | Thu, Oct 20 | Fri, Oct 21 | Sat, Oct 22 |
|-------------|-------------|-------------|-------------|-------------|-------------|-------------|
| Mar 11-12 | Mar 13-14 | Mar 15-16 | Luk 1-2 | Luk 3-5 | Luk 6-7 | Luk 8-9 |

Julie Everhard restarted the project in 1989 and the VMS team came to help in 1997.

First of all, it was a spiritual warfare. They needed 'actors' who could play the roles of biblical characters, one of which was Satan. Somehow, a shaman was picked to play Satan. Strangely enough, his voice was audible to the headphones of the VMS workers but it was not recorded on the tape. After many trials, they finally got the voice recorded but it was noise-filled. "If you are... buzz...hiss, pop!... the Son of God... crackle... stones to become... buzz!... bread."

The VMS staff did everything until they realized it was a spiritual warfare.

"Father, we recognize that this is more than a technological battle. We know that you want the Mamaindé to hear the message of Jesus, and we know the enemy of souls opposes that. We ask that you restrain the forces of darkness opposing us now and make it possible for us to get a clear recording. Amen."

Amazingly, the noise was taken off after they prayed.

Another challenge was to gather them for the

presentation of the film. They are an active, nomadic people. The staff was not sure if they would come but they came to watch the film and even stayed to the very end, until Jesus' resurrection.

When *The JESUS Film* in Mamaindé was over, when Jesus' victory over death was clear, they sat still as stones, saying nothing, overwhelmed with the power of the message. These people, who had had the gospel in their own languages for over twenty years and never responded to it, were hearing it as if for the first time.

(pp. 23-30, "Zacchaeus in Mamaindé", *Jungle Flight*, by Dane Skelton)

The Mamaindé people began to worship God as a result of this and want to know more about Jesus. They came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lead them to eternal life, saving them from the soul-eating Anaconda after their death.

Jesus himself used one of the most powerful communication skills, storytelling! The Gospel of Luke is filled with many parables which are good stories. Just like in those days, people from oral societies respond enthusiastically when these Bible stories are told in their language.

Wycliffe Canada has started a Bible reading movement through which churches in Canada can be revived and those people groups who do not have the Bible can be blessed by the prayers and offerings of the participants, a cent per verse. Please contact us if you want to join. rbbb@wycliffe.ca 416-888-2262

